

“마을중심 생활행정 실현...지역경제 회복 집중”

김이강 서구청장 민선 8기 구정 비전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민선 8기 구정 비전을 ‘함께서구 우뚝서구’로 정하고,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사회의 권위주의를 타파함으로써 변화된 민심을 읽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행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마을 중심의 자치도시를 실현해 서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취임사를 통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편집자 주

지역민 정책 제도·예산 뒷받침
신뢰 바탕 적극 소통행정 강조
테마길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돌봄체계 완성 성공모델 구축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6일 서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내걸에 구청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권위적인 형식을 내려놓고 소통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김 청장은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이유는 서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 안전하며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행정이 신뢰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안전한 서구를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부터 다시 쌓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민선 8기 서구 비전으로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제시하고, “30만 서구민과 함께 하나된 힘으로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대 구정방향으로 ▲마을중심 자치



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청장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민선 8기 핵심 첫 업무로 마을중심의 생활행정 실현을 꼽았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지원해 일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서구 18개 동은 컨트롤 타워인 서구청의 업무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실행단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직접 마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기획·추진하면 서구청은 뒤에서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유행을 따라 획일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경쟁하기보다 서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길을 골목상권과 연결해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서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테마길을 골목상권과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이후 첫 행보로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을 강조한 김 청장은 서구를 ‘안

전 일번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청장은 “안전이 시대의 최고 화두가 됐다. 기후위기와 자연재난, 그리고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안전만큼은 한 치의 오차나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안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와 결합한 ‘함께서구 돌봄체계’를 완성해 자치형 성공모델로 만들고, 서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서구만의 색깔을 입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도 ▲탄소 에너지자립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행복중심 문화도시 실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행정이 신뢰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서구에서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키워나가겠다”며 “서로를 믿고 존중하면서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신바람나게 일하는 공직문화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시 서구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민과 직장인들의 마음 회복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 제공

‘마음안심버스’로 코로나 블루 원스톱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광주시 서구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민과 직장인들의 마음 회복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버스 내부에는 개인 상담을 비롯해 스트레스 측정 공간, 휴게공간인 맘카페로 꾸며져 있어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구가 보건복지부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됐다.

‘마음안심버스’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서구 관내 18개 동을 순회하면서 홍보 활동을 펼

쳐왔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과 치평동 금요시장, 관내 관공서 등을 찾아가 총 28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고위험군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 등 정신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후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생활터별 직장인과 생애주기별 어르신들을 찾아 다니며 코로나 블루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혜린 기자

48명에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호응’

식사·이동지원 등 통합돌봄

광주시 서구는 거주지에서 의료, 식사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선제적 모델인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는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펼쳐오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의료기관에서 퇴원

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이 살던 집에서도 의료,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의료급여 서비스다.

서구는 현재까지 선정된 48명에게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편리하고 완결성 있는 케어를 제공했다.

앞서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서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진료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김혜린 기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정부 우수사례 선정

독서진흥·도서관 특성화 분야

광주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정부합동평가 정성부문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지난해 특화된 생태체험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환경 감수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정부종합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자치단체 평가 제도이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아이들이 꿈을 펼

칠 수 있는 ‘생태나드리(NADLI) 사업’ 체험과 전국 도서관 최초로 시행한 ‘생태도서관 탐험대’, ‘푸른별 환경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했다. 또한,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등 각종 생태친화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다.

앞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사업’과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M 전남매일 | 제11회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